열린뉴스

2006. 3.

· 발행인 | 한영주 · 발행일 | 2006년 3월 ·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http://www.jd.re.kr TEL. (063)286-9201 FAX. (063)286-9206

J E O N B U K D E V E L O P M E N T I N S T I T U T E

CONTENTS

1_ 열린단상
2_ 연구원 리서치 1 / 전정희
3_ 연구원 리서치 2 / 이승형
4_ 연구원 리서치 3 / 나상균
5_ 연구원 리서치 4 / 이동기
6_ JDI 콜로퀴엄
7_ 여성정책포럼 지상중계
8_ 연구원 소식

전북발전연구원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열린뉴스 2006. 3

| 열린단상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원의 역할

참여정부가 국정최대목표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첫 작업으로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설정하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면 후반기는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의 실천적 기초위에 국토공간의 재편성을 통한 도농상생의 실질적 균형발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급변하는 시대환경과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춰 지방과 중앙이 동시에 상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그 목표가 있다.

지방분권의 주체가 중앙정부에 있다면 지역혁신은 그 주체가 지역이다. 정부가 지방분권정책의 일환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중앙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을 잡아주는 대신 지역은 지역대로 이러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지역의 혁신역량과 교접시킴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지역의 자발적 혁신역량과 결합되지 않으면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전라북도는 타 지역에 비해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낙후와 저개발이 지속되었다. 이로인해 투자환경의 열악해지고 저성장의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시험지역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국가차원의 균형발전정책은 절대적 균형이 아닌 상대적 균형을 통해서만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전북은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스스로의 발전전략을 준비하고 이에 대응해야 한다. 전북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살려 차별화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높여나가기 위해 산학연관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미래비전을 설계해야 한다.

전북의 종합발전연구원인 전북발전연구원이 그 역할의 중심에 서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우선 산학연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한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는데 연구원이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 청정한 자연환경과 조화된 신재생에너지, 잘 보존된 전통문화, 자동차산업 집적화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기계산업, 농업관련기관 이전에 따른 농업생명과학중심의 혁신도시 등 전략산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전북의 공간이 재배치 될 때 전북은 도농 상생형의 미래비전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전북발전의 동력은 내부혁신역량강화가 핵심이다. 전북발전연구원은 지역의 혁신주체들과 긴밀한 협력시스템을 만들어 내부역량을 배양함으로써 전북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연구역량을 최대한 결집해야겠다.

전북발전연구원장 | **한 영 주**

여성취업율 제고가 양극화해소 지름길

최근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떠오르고 있는 화두가 사회양극화 문제다. 양극화는 경제 안정, 일자리 창출과 같은 경제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고 전북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급속한 진행으로 우수한 노동력의 확보가 중요한 정책요점으로 되고있다. 그 중에서도 여성인력을 자원화하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 지역적인 과제이다. 고학력 여성들의 전업주부화 비율이 높고, 대졸여성의 취업률은 OECD국가의 평균(83%)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55%에 불과하다. OECD는 고학력 여성인력을 사장시키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 한국의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본원 여성정책연구소에서는 올해 "전북지역 미취업 여성의 경제활동 욕구조사 및 참여방안 연구"와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우선적으로 전라북도의 여성 취업률 제고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전라북도의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이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겪게 되는 제약요인은 무엇인가, 취업욕구는 어떠하며, 취업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여성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과 일자리 개발 프로그램 등을 검토하고, 여성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서 전북지역의 사회 · 경제적 생산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사는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여성, 전업주부,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참여경험이 있는 여성, 현 취업 여성, 과거 취업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미취업 상태인 여성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사례연구를 실시하게 된다.

이 연구를 통해서 취업 의지가 있는 여성들의 다양한 특성과 욕구가 반영된 취업정책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또한 취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노동시장의 진입 및 탈퇴와 같은 여성의 취업력에 관한 사례조사를 통하여 노동시장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전라북도 기업의 인사 및 취업 담당 관련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여성인력 고용 현황,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 여성 인력 활용실태, 기업이 여성 노동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시각, 여성에게 유리한 직종, 여성취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기업체를 대상으로 여성고용업체의 수요와 욕구파악을 통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취업의 유용한 도구로 삼고자 한다.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위와 같은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전북여성의 욕구와 기업의 상황이 만나는 접점이 무엇인가를 고찰하여 그에 부합하는 취업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책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다음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동의 문제는 저출산 현상의 심화, 이혼율의 증대에 따른 가정의 해체 등이 심각해지면서 점차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저출산으로 말미암은 아동수의 감소는 미래의 노동력 부족현상과 맞물려 있고, 아동들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여러 가지 위험과 유혹,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서 이제 아동보호와 아동복지 문제는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아젠다로 부각되고 있다.

IMF 이후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한 저소득 가정의 양산과 중산층의 붕괴로 말미암아 가정의 해체가 가속화되었고, 그 여파로 아동의 유기나 시설에의 방치 현상이 증가되었다. 이제 각 시설들에는 부모를 잃은 아동보다도 부모가 있으나 돌볼 수 없거나 돌보지 않는 부모를 둔 아동의 수가 더 많게 되었다. 아동의 복지는 과거처럼 사적영역의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적영역에 속한다는 인식전환이 새롭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동들은 가정으로부터의 유기뿐만 아니라 심각한 폭력으로부터의 위협, 마약과 인터넷의 홍수에 따른 갖가지 부작용, 부적절한 성의식으로 인한 어린 미혼모의 양산, 노동시장으로의 방치와 같은 적대적 환경들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아동들의 권익증진과 요보호 아동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개발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게 제기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원 여성정책연구소에서는, 전라북도 아동복지 기초 수요조사 및 정책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전북지역 아동에 대한 안전과 보호, 아동의 관리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요보호 아동(시설, 소년소녀 가정, 저소득 가정 등)을 대상으로 복지수요 조사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권익증진과 아동복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요보호 아동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 시설 및 정책 자료를 비롯하여 기존의 연구 자료를 수집, 분석 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면접조사와 아동시설 운영에 관한 면접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일반아동과 요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안전과 보호, 권리와 복지실태 등이 중심이 될 것이며, 지역아동복지센터의 운영과 운영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미래의 여성정책은 과거 요보호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차원을 넘어 여성의 자활, 자립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동시에 가족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가정해체의 직접적 피해자인 아동들에 대한 복지에도 관심이 증대될 전망이다.

여성정책연구소장 | **전 정 희**

문화관광 및 농산어촌발전

최근 자연 · 문화자원의 보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환경친화적인 관광개발에 대한 논의와 함께 테마관광으로서 '자연추구', '모험추구', '체험추구' 중심의 관광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국제연합(UN)은 2002년을 '세계 생태관광의 해'로 지정하였고, 세계관광기구(WTO)는 '세계 생태관광 정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국내적으로는 주5일 근무제의 본격시행으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이 등장하고 있다. 물질생활이 풍요로워질수록 사람들의 지적 자기실현 욕구는 높아지기 마련이다. 문화적 목표가 생활의 중심으로 나타나게 되고 여행활동도 자아실현 및 자기계발을 추구하는 유형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로 인해 기존의 관람형 관광이 레저, 스포츠, 문화, 생태, 체험 중심의 체류 및 시간소비형 여가패턴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에 인터넷사이트에는 취미를 공유하는 직장단위의 동호회가 활성화되고 있고, 가족단위 자녀동반형 자연학습과 현장체험 활동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주말농장 등을 이용한 농사체험이나 농촌관광을 통한 야외 휴양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관광수요에 있어서 다양화, 차별화가 가속화될 것이란 판단이다.

이에 반해 농촌사회는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노령화 · 부녀화되어 지역사회로의 기능과 활력이 점차 쇠퇴되고 있어 농촌사회의 활성화와 도농간 양극화 해소, 국가 균형발전 등이 국정의 주요한 관심사항으로 등장하고 있다. 중앙부처는 농산어촌의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민들의 새로운 관광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어촌체험관광마을', '정보화마을' 등 다양한 지역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이러한 다양화, 차별화된 관광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해 6월 전라북도는 지역활력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F-Tour Project'를 발표했다. 맛과 멋 그리고 소리 등 전북 전통문화와 청정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전북의 역사와 생활문화를 근거로 한 다양한 지역축제의 개발과 연계를 통한 관광상품화로서의 Festival-Tour, 맛과 건강이 조화된 웰빙상품으로서의 Food-Tour, 청정한 자연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체험위주의 Farm Tour, 해양, 산악, 내륙지역의 다양한 레져스포츠를 직접 체험하는 Foot Tour의 네가지 Tour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상품개발을 통해 추진한다는 것이다. 지자체간의 경쟁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차별화된 지역문화나 지역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관광상품의 개발을 통해 지역의 매력을 창출하기 위해 전라북도는 고속도로 · 국도변, 관광지, 도시주변 등에 경관림을 조성하여 관광자원 및 어메니티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녹색경관벨트 조성사업, 섬진강 권역의 문화콘텐츠 자원과 연계한 영상콘텐츠 개발 및 관광분야와 접목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려는 섬진강권역 영상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농촌지역의 활성화 및 새로운 농외소득 증대를 꾀하기 위한 농산어촌 체험관광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어촌체험관광과 관련한 중앙부처(농림부, 행자부,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등)의 개별적 추진으로 나타나는 정책간 연계성 부족, 지역 안배 차원의 분산투자로 인한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상호보완하는 통합적접근방안과 농산어촌체험관광을 이끌어갈 마을조직 육성 및 역량있는 리더육성, 지역의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등 다양한 요구가 산적해 있다. 경관림 조성을 통한 녹색벨트의 조성에 있어서도 지역별로 특색있는 경관림 및 테마숲을 어떻게 조성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초조사 등이 요구되고 있다. 섬진강권역 영상관광벨트 조성사업도 단순한 하드웨어 위주의 사업이나 관광자원 개발사업과 같은 현안사업을 지양하고, 영상산업 기반조성 차원의 영상촬영지 조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관광자원화 및 관광개발 정책과 어떻게 연계하여 추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같은 관광수요의 변화와 전라북도 내 농촌지역의 활성화 및 관광여건 조성을 위해 우리 연구원에서는 섬진강권역 영상관광벨트화 타당성 조사, 농산어촌체험마을 종합관리방안, 서해안권 녹색경관벨트 조성방안의 세가지 기본연구과제를 추진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전라북도의 경쟁력있는 문화관광 및 농산어촌의 발전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양극화의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연구위원 | **이 승 형**

이전 및 창업기업의 사후관리지원방안

환경변화에 따라 어떤 기업은 계속 생존하고 어떤 기업은 도태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기업의 생존과 도태는 그 기업 내부요인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으나 기업을 둘러싼 외부환경요인으로 인해 나타나기도 한다. 전라북도의 2005년도 제조업 기준 기업유치 실적은 타시도 이전기업 71개, 도내 창업기업 336개, 분양면적 23만평, 투자규모 1조9,330억원, 고용효과 10,976명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많은 기업들이 이전 및 창업을 하지만 기업의 생존은 기업을 둘러싼 환경, 기업관련 제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이전 및 창업기업의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의 이전 및 창업 기업들이 영세성과 저생산성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는 타 시 · 도에 비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들의 수가 매우 적은 편으로, 기업생태계의 취약성이 고용창출 등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전 및 창업 기업 활성화, 즉 "지속 성장하면서 성과가 뛰어난 이전기업"에 대해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이전 및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경공업과 중공업, 계열기업과 독립기업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조건이 같다면 시장 진입율이 높은 산업에서 이전 및 창업 기업은 높은 경쟁에 직면하게 되어 이에 따라 시장진입 후 이전 및 창업기업의 생존이 보다 어렵다. 이전 및 창업기업은 시장진입 후 3년 정도만 버티면 생존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높은 도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는 이전 및 창업 기업이 계속 생존을 위해서는 경영환경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적응능력을 배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전 및 창업기업은 기존기업과 연결하는 허리로 기업 생태계 번성을 위해 필수적인 존재이다. 기업이 얼마 동안 생존하는가는 이전 및 창업지역, 시기, 산업별로 기업이 처한 환경의 차이만큼이나 기업의 생존기간과 생존율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전 및 창업 기업의 발전단계를 보면, 생성기와 1차 성장기를 거쳐 2차 성장기, 성숙기, 재성장기 등의 단계를 거치고 있다. 이전 및 창업기업의 생존기간이 어떤 요인에 의해 기업의 생존이 결정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전 및 창업기업의 생존기간은 기업의 고유특성과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고유 특성에 따라 달라지만 어떠한 시스템으로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 기업의 발전단계별 경영과제와 성공요인에서 교훈을 얻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많은 경쟁력 있는 이전 및 창업 기업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이전 및 창업기업의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의미 한다.

이러한 사후관리가 기업유치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기 투자한 전라북도 기업인의 한마디가 신규투자가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기 투자한 기업들의 주변 관련 기업이 전라북도 지역에 투자를 고려할 때 기 진출한 기업의 평가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사후 관리 면에서 이전 및 창업 기업의 고충 현황을 보면, 노동, 조세, 법률, 투자절차 등에서 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제도 개선과 함께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전라북도에 투자한 기존 투자 기업은 재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한번 투자를 한 이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고, 좋은 사업 환경을 만들어 재투자를 유인하거나 관련 기업의 신규투자를 유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전 및 창업 기업이 투자를 결정한 이후부터 투자과정 및 투자이후 경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 이전 및 창업 이후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도 해결해 주는 활동을 전개해야 하고 애로사항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애로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창업 기업에 관해서는 창업보육센터의 양적 확대를 도모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창업보육센터가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보육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여 신산업 창출 및 신규 고용창출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창업보육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창업보육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원기관 간 중복 ·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업보육정책의 체계화 및 기업시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둘째, 창업보육정책을 양적 확대에서 질적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셋째, 창업보육정책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 및 기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전 및 창업기업의 장기적인 침체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수부진, 자금난 등 경기순환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적인 원인 분석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전 및 창업기업의 구조분석을 통하여 성장구조 및 혁신역량 등의 강점의 분석을 통하여 이전 및 창업 기업체의 공공정책 관리방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위원 | 나 상 균

신청사시대 도정의 업무 효율성 추진을 통한 지식행정 실현

전라북도는 신청사 개청으로 인하여 기존의 행정 관행, 업무 방식 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직 분위기 형성과 행정 역량을 강화하는 도정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단순히 신청사의 개청이라는 명제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행정환경의 급변화와 도민들의 고품질 행정서비스의 요구 등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 이제 도정은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하고 생산요소의 획득을 위한 비교우위 전략을 선택하여야 한다. 고객의 요구와 수요를 진단하여 효율적인 정책 대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여야 할 시점에 이르고 있다. 경쟁과 시장의 논리에 행정이 노출되어 있고 행정의 경쟁력이 곧 지역 발전과 직접적인 연계고리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정책경쟁을 통해 행정을 마케팅하고 다양한 혁신 전략을 수립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이끌어야 한다. 국가 간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은 지방정부간 정책경쟁의 상품시장을 형성시키고 있다. 글로벌 경쟁시대의 이러한 환경속에서 정책경쟁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도정 운영의 키워드는 혁신, 성과, 고객만족이다. 행정혁신은 일하는 방식의 개선뿐만 아니라 제도, 시스템 등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정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도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참여 지향적인 도정 운영과 방향을 설정한다. BSC는 모든 조직 구성원의 참여를 전제로 하여 도정 운영의 전반적인 비전과 목표, 관점, 사업단위별 지표 등을 통해 전략적인 맵의 연결고리를 형성, 완성하는 방식이다. 고객만족은 도정 운영과 방향에 있어 핵심적인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고객만족을 통해 납세자인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 실현과 수요자인 기업이나 방문객들에게 요구 수준을 진단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을 구사하여 일류행정을 실현하는 첨병 역할이다.

이러한 키워드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도정은 지식행정시스템을 구축할 때이다. 도정의 지식행정은 이제까지 인사이동이나 업무의 이관 등으로 인하여 지식자원의 단순관리에 치중하여 연계성과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청사 시대를 맞이하여 도정은 지식행정의 실현을 통해 무형자산인 지식의 가치와 역할의 강화, 창의적 지식의 창출, 지식의 공유와 확산, 지식협력의 외연을 확대하고, 업무과정에서 형성된 행정지식 · 업무매뉴얼 · 분야별 업무편람 등을 통해 지식행정의 인프라를 형성함으로써 행정의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식행정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초적연구와 전략적연구를 통해 지식 흡수능력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북발전연구원은 전북도정 성과와 미래발전전략 연구, 2006 전라북도 주요 업무 자체평가 도민만족도 조사, 전라북도 공공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갈등영향분석,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지역통계의 적극적 활용방안, 전라북도 홍보실태 및 개선방안 등의 기본연구과제를 선정하였다. 첫째, 전북도정의 성과와 미래발전 전략 연구는 민선3기 동안의 전북 도정에 대한 성과 평가를 전제로 하여 민선4기에 반드시 실현하여야 할 미래비전과 이에 따른 발전전략을 연구하는 과제이다. 이 연구과제를 통해 전라북도의 미래 변화상을 그려보고 새롭게 전개되는 행정환경에 전라북도의 대응 전략이 마련된다. 둘째, 2006 전라북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도민만족도 조사의 연구는 고객만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만족도 조사의 측정방법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도정 업무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를 통해 정책에 피드백 시키는 연구이다. 이 연구를 통해 도정 정책과 도민들의 판단의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정책실패를 최소화하고 고객만족 행정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라북도 공공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갈등영향분석 연구는 전라북도의 공공사업 추진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사전적인 진단 및 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집행, 도민들과의 신뢰 형성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갈등영향분석은 갈등관리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방법론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매뉴얼 및 분석방법의 연구를 통해 과학적인 연구 기반을 확립하게 될 것이다. 넷째,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지역통계의 적극적 활용방안은 지역통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확한 지역현황 및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지역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경제통계를 중심으로 도출함으로써 전북통계의 안정적인 구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전라북도 홍보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는 전라북도의 홍보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전라북도가 안고 있는 홍보의 문제점, 브랜드 관리, 조직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전라북도 홍보의 체계적인 정립과 더불어 효율적인 집행구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원이 올해 추진하게 될 연구과제들은 현재 도정이 안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내용들이다. 행정환경의 변화와 정책경쟁의 돌입, 지방분권화에 따른 행정의 역량 강화 등 이 모든 것은 이제 도정이 지식행정의 시스템 구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필요로 하고 있으며 연구원의 역할 또한 중대해지고 있는 것이다.

연구위원 | **이 동 기**

새만금 친환경 지능형 유비쿼터스 광역 도시 건설

지난 2월 16일(목)에 본원 회의실에서 군산대 이홍로 교수를 초빙하여 "새만금 친환경 지능형 유비쿼터스 광역 도시 건설"을 주제로 2006년 제1차 콜로퀴움을 개최했다. 이날 콜로퀴엄은 지난해 본원에서 주관한『대형국책사업발굴현상공모』에서 가작으로 당선된 공모작으로 본란은 이날 발제된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편집자 註

정통부는 2006년 2월 8일 'IT 839전략'을 수정·보완한 'U-IT 839전략'을 수립하였다. 이 'U-IT 839전략' 중에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SN: Ubiquitous Sensor Network)란 필요한 모든 것(곳)에 RFID 무선식별(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태그를 부착하고(Ubiquitous), 이를 통해 사물의 인식정보(Identification)를 기본으로 주변의 환경정보(온도, 습도, 오염정보, 균열정보 등)까지 탐지하여(Sensor), 실시간으로 광대역 통합 망(BcN: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에 연결하여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다(Network). 이 첨단 기술인 USN을 이용하여 수질, 갯벌, 해수유통 및 토사 퇴적 등에 대한 자료를 데이터웨어하우스(data warehouse)에 저장, 운영 및 분석 등 다양한 의사결정 기법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새만금 내부개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새만금 사업은 전북은 물론 한국의 미래를 보장할 거대 현안사업이다. 이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질, 갯벌, 해수유통 및 토사 퇴적 등에 대한 정보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첨단 과학 기술이 필요하다.

현재 새만금 간척지역은 아직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경제적 타당성이나 과학적 근거에 의한 내부 개발안이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내부 개발을 위한 의사결정 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U-IT 839전략' 중에서 RFID/USN 기술을 제안한다.

현재 정부는 산업간에 이루어지는 융합에 적극 대응해 블루오션(blue ocean)을 창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통부가 추진하는 'U-IT 839전략'은 한국이 2010년에 디지털 융합기술과 유비쿼터스 시대를 주도하는 세계적인 IT 신성장 모델 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발전 목표에 부응하고 블루오션을 창출할 수 있는 최적지가 바로 새만금 간척지라고 본다.

더욱이 정부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행자부, 국방부, 건교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관련 기술의 개발과법, 제도의 정비를 위해 "U-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도시의 지하 시설물 관리, 유비쿼터스 항구 건설 등 분야별 적용기술에 대한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지자체와 공동으로 시범사업 과제를 발굴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U-코리아 프로젝트"의 시범 사업단지를 새만금 간척지에 적용하면 낙후 전라북도 도민의 숙원사업은 해결되리라 본다.

전북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전라북도와 전북발전연구원에 새만금 간척지역에 친환경 새만금 지능형 유비쿼터스 광역 도시 건설을 위한 "유비쿼터스 센서네트워크(USN) 기반 새만금 정보통신기술(ICT) 연구 센터(안)"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새만금 ICT 연구센터(안)의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비쿼터스 기반의 USN 인프라 구축 및 무인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온, pH, 전도도, 수위, DO 및 조류 등의 담수 및 해수 수질 오염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온, 기압, 습도, 풍향, 풍속 및 먼지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한다. 또한 지하수의 전도도, 물 흐름 방향 및 염분 등의 오염을 탐지하기 위해서 지하수 측정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공중 정찰 영상정보(항공기, 인공위성)를 획득하여 갯벌지형 및 온도, 식생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영상정보 구축을 통한 위치기반서비스(LBS)의 공간정보로도 활용한다.

둘째, USN 기반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웨어하우스를 구축한다. 이것은 새만금 유역의 육상, 해상, 해저의 종합적인 생태 변화 관찰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것이고, 새만금 내부 개발의 방안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여 준다.

셋째, USN 기반 Event를 창출하는 U-City를 위한 Master Plan을 설계 및 수립한다.

이것은 USN 기반 정보를 생산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새만금 간척지역에 친환경 새만금 지능형 유비쿼터스 광역 U-City를 건설하는 여러 가지 경우의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Event를 발생시킨다.

△ U-친환경 에너지 관광단지: 유비쿼터스 기반의 친환경 생태 에너지 순환 단지 사업, 풍력/태양/조력 에너지 생태 순환 관광단지
△ U-첨단산업 단지 및 연구단지: U-IT 839 기반 산업/ 연구단지 유치
△ 친환경/최첨단 농경지: 부가가치가 높은 Well-Being형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생명/식품단지 조성
△ U-생태 도시/U-Port: 싱가포르, 홍콩 및 마카오 등과 같은 친환경 도시 국가를 건설

이러한 새만금 친환경 지능형 유비쿼터스 광역 도시 건설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효과로는 환경 정보 공유 및 예측에 의해 개발과 보존이라는 갈등구조를 해소할 수 있고, U-기반 지능형 생태 환경 감시/예측/예방에 의한 인간 중심의 쾌적하고 편리한 새만금 개발의 시스템적 접근에 기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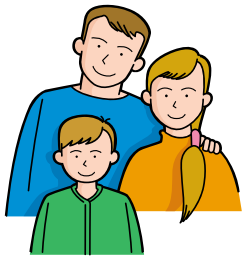
또한 광대역 기반의 유비쿼터스 공간 조성에 의한 미래형 정보 기술을 확보하고 세계 선진화에 기여한다. 환경적인 효과로는 실시간으로 오염물질의 배출량 모니터링을 통한 환경 및 생태 보전을 위한 자료 제공이다. 특히, 새만금 호수의 오염관련 예측/예방 시스템에 의한 최적의 호수 활용 방안 도출이 가능하고, 지능형 생태관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효과로는 U-기반의 친환경 체험 관광단지 및 친환경 생태 에너지 단지조성에 의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U-기반의 물류거점 지역 확보에 의한 동북아 물류 중심지가 된다. 나아가 U-기반 첨단 과학 산업단지 및 연구단지의 입주로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친환경 U-국제도시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리 | **편 집 부**

전라북도 가족실태 및 가족정책 추진방향

본원 여성정책연구소에서는 지난 2월 28일 본원 회의실에서 전북의 여성단체, 시민단체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정책을 주제로『제1회 여성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은 본원의 조경욱 연구위원과 우석대학교 이성희 교수가 각각 "전라북도 가족실태 및 가족기능강화 방안"과 "가족의 변화에 따른 가족정책의 수립 방향 – 건강가정기본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를 발표하고 본원 전정희여성정책연구소장의 사회로 토론이 이어졌다. 본란은 이날 포럼에서 토론자들의 토론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註



조경욱연구위원은 전라북도가족실태 및 가족기능강화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전북지역 가족구조 변화추이 및 특성은 핵가족의 비율이 낮고 자녀의 취업, 취학, 결혼으로 인한 1세대 부부가족, 3세대가족, 1인가구의 비율이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증가일로에 있어 이주여성과 그들 가족의 정착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호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2인부양자 모델이 보편화되고 있어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원을 돌보는 노동이 여전히 가족과 여성에 의해 수행되거나 이에 대한 사회의 의존도가 높아 돌봄노동을 둘러 싼 '가족과 노동'의 갈등이 점차 심화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정책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돌봄노동에 대한 남성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남성들의 의식전환과 더불어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성희교수는 가족의 변화에 따른 가족정책의 수립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최근 우리사회의 가족변화의 핵심과 가족을 둘러싼 사회적 결과는 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 및 역할의 변화에 의한 결과가 직,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와 함께 여성이 주로 담당해온 가족 내 양육 및 부양(돌봄) 기능의 공백이 증가하였으며, 이혼을 비롯한 여성 한부모(모자)가족의 증가, 급격한 출산율 감소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관계가 있으며 실효성 있는 여성 · 가족친화적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가족가치관의 변화 및 정서적 유대의 약화는 가족의 다양성 인정과 평등한 가족문화 정착을 위한 법 ·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지표들에 따라 여성부에서는 가족정책의 기본방향을 보편성, 평등성, 사회성, 통합성으로 정하고 세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 시행하였다. 따라서 이 법에 근거하여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 도 및 시, 군, 구에 16개소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가정'이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적 합의가 필요하며, 기존의 사회복지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내용 및 방향에 있어서 차별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사회의 유사관련기관(가족관련 상담소 및 시민단체)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가족정책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보급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전략적 차원에서 건강가정지원사업에의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혜숙(한일장신대 교수)

현재의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계층 및 특성별(비혼, 단독, 국제결혼, 도시, 농촌, 노인, 아동,지역)로 세분화하여 욕구가 파악될 필요가 있으며 연구가 좀 더 심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의 성과가 보고에 그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협조와 사회적인 연대, 그리고 정책홍보 등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 김미숙(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두드림 팀장)

여성에게만 편중되어 있는 돌봄노동의 영역을 탈여성화 하여 남성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탈 가족화 하여 돌봄노동을 사회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를 논의해야 하며, 또한 여성이 언제나 부모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임을 인정하는 사회, 여성에게 '일'과 '자녀' 혹은 '가족'중 선택을 요구하지 않는 가족정책, 아동복지정책, 노동시장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가족관련 논의에서 저출산 고령화에만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가족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근친강간, 폭력, 빈곤으로 인한 청소년 가출 문제 등에 따른 적극적 대책 마련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 고희숙(원광대 강사)

건강가정지원법이 가족을 통한 가족복지가 아닌 탈 가족화, 즉 가족부양부담의 사회화에 두는 방식으로 가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일부분에 있어 두리 뭉실한 법조항으로 그에 따른 후속 정책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있다. 또한 가족실태조사 주기가 5년으로 되어 있으나 이 기간은 현재 가족의 변화속도에 비추어 볼 때 기간이 너무 길어 가족들의 현실을 잘 반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조사주기를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기존의 사회복지기관과의 차별성 문제에 있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예방적 차원의 가족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합한 프로그램을 연구 · 개발 보급하고 건강한 가족문화를 선도하는 측면을 중점적으로 특화하고 기존의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치료적 차원으로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으로 각각 특화하여야 한다.

⊙ 홍달아기(원광대 교수)

가족변화의 지표가 너무나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강조하여 설명되고 있어 가족변화와 정책 또는 건강가정의 여부가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해 좌우되는 듯 한 주장으로 들려서는 안 되며 가족 구성원 모두의 역할이 중요한 것임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발전방향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사회복지기관과의 차별성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데는 매우 공감하며 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전공자들로 구성된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야 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홍보가 매우 필요하다.

⊙ 사회자 (전정희 여성정책연구소장)

가족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을 통하여 가족을 둘러 싼 제반 체계와의 관계에서 가족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토대로 가족정책의 방향이 수립되어야 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 및 가족정책의 시행 주체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충분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적인 차원에서의 제도 구축과 재정적 지원이 뒤 따라야 할 것이다.

여성정책 연구팀 | **한 승 주**

▣ 본원 개원 1주년 기념 행사

본원은 3월 10일 개원 1주년을 맞아 9일 오후 5시 기념행사를 본원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 도의회 업무보고

본원 한영주원장은 지난 2월 22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진명)에 출석해 2006년도 본원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행정자치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 기본과제 착수 자문회의 개최

일 시	과제명 / 연구책임	자문위원	활용부서
2월 24일	전라북도 물류종합발전계획 / 박형창	김민영 (군산대학교 환황해연구소장) 장태연 (전북대학교 교수) 김태중 (군산항컨테이너터미널운영(주) 상임이사) 이기현 (세방(주) 전주지점장) 이성수 (전라북도 경제정책관) 양영철(전라북도 항만물류 담당)	경제항만 정책관실
2월 28일	전북도정 주요 성과와 미래 발전전략 / 안완기	최 훈 (기획혁신본부 기획관) 이호근 (공보관) 김종엽 (경제통상실 기업유치지원단장) 김용만 (경제통상실 과학산업과장) 김황룡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오규삼 (문화관광국 관광진흥과장) 이홍섭 (농림수산국 농업정책과장) 심정연 (환경보건국 환경정책과장) 장순주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장) 고근택 (건설교통방재국 건설행정과장) 조봉업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기획조정과장) 윤 철 (국책사업기획단장)	기획관실
2월 28일	농 · 산 · 어촌 체험마을 종합관리 방안 / 이승형	박재철 (우석대학교 교수) 송광인 (전주대학교 교수) 박천창 (진안군 농길마을 대표) 우장명 (충북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정병우 (전라북도 농업정책과 농업경영담당)	농업정책과
3월 7일	전라북도 제조업체의 구조분석 연구 / 나상균	김갑룡 (전주대학교 교수) 공영식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지원 총괄과장) 김관식 (전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획관리부장) 권남진 (전라북도 기업유치지원단 기업지원 담당)	기업지원과
3월 9일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 김보국	변무섭 (전북대학교 교수) 박미호 (생명의숲 운영위원 마을숲위원) 심정연 (전라북도 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

▣ 과학기술포럼 개최 안내

과학기술포럼은 우리 도에서 시행 중인 과학기술 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과학기술의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과학기술포럼은 2006년 2월부터 4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매주 목요일(11:00~12:00) 전북도청 경제통상실 브리핑룸(12층)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진행일정

월	일	내 용	발표자
2	2	• 전북대 나노기술집적센터	전 태 영
	9	• 원광대 나노급방사선 의료영상첨단기술개발사업	윤 권 하
	16	• 전북대 바이오실용화연구센터	신 동 화
	23	• 원광대 한방뇌질환연구센터	이 호 섭
3	2	• 원광대 인수공통감염병치료제 연구개발	박 현
	9	• 전북대 대학IT연구센터지원사업	임 명 섭
	16	• 전북대 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헬스케어)	김 학 용
	23	• 전북대 반도체연구기반혁신사업	서 은 경
	30	• 군산대 새만금 환경연구센터	이 상 호
4	6	• 전북대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	채 수 완
	13	• 전북대 차세대반도체설계인력양성사업	정 진 균
	20	• 원광대 차세대방사선산업기술지역혁신센터	이 충 훈
	27	• 전북대 메카트로닉스 연구센터	김 성 중

▣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위원회

전라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위원회가 3월 8일 11시 본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지역혁신협의회의 활성화 방안 등 2006년도 지역혁신협의회 사업계획 등을 논의 했다.

원장동정

2월 20일 전라북도지사실에서 데이비드 스미스박사 초청 새만금 관련 특별대담에 참석
2월 21일 전북도청에서 노무현대통령이 참석한 혁신도시 건설 보고대회 참석
2월 24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세계물류박람회 조직위원회 1차 총회 참석
3월 8일 전라북도지사실에서 전라북도와 여행사(주 모두투어)간 업무제휴 협약식 참석

게 시 판

◈ 무주관광레저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토론회

오는 3월 23일(13:00~17:00) 무주리조트에서 본원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무주관광레저도시의 성공적 조성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관광레저도시 시범사업 대상 지역별로 내실 있는 개발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성공적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정부, 자치단체, 기업,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전북발전포럼」 원고모집

· **원고성격** : 지역현안 등과 관련된 칼럼, 논문 등
· **제출기한** : 수시모집
· **제출방법** : 이메일(이메일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디스켓과 함께 제출),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

알림 「연구과제」 공모

연구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로 채택된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본원에서 발간하는 연구보고서 및 정기간행물 등을 송부해 드리며, 심사를 거쳐 공동연구참여 등의 기회를 드립니다. 아이디어 제안은 홈페이지 www.jd.re.kr(연구제안)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